

한국종교박물관

역할과 과제 심포지엄

종교간 교류 유도하는 현장



한국종교박물관 현황과 과제에서 발표중인 심원 스님과 토론을 맡은 정우택(동국대) 교수.

종교를 테마로 한 박물관 대다수가 예산·전문인력·시설의 전문성 부족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는 한국박물관협회 주최한 제1회 학술심포지엄 '한국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교 박물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박물관을 통한 종교 교류의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이홍(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불교, 가톨릭, 원불교의 여

성보박물관 예산부족·시설 관리 미비 문제점 기록박물관 전문인력난·자료 유물 보충 시급

성 성직자로 이뤄진 삼소회(三少會)의 예를 들며 박물관도 종교간 교류를 유도하는 현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성보박물관과 기독교 박물관의 현황 발표에서는 예산·전문인력·시설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미비를 지적했다. 또 '기독교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김홍수(목원대) 교수도 전문인력·새로운 자료·유물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심포지엄에서는 성보박물관 건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종교박물관의 건축과 과제'를 발표한 조인숙 건축사(동국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박물관은 건축기술만큼이나 종교적 신앙심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news.com



연재를 마치며...

인간적 불교미술을 찾아서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구성, 비례, 색채 등 피상적인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 있지만, 어느 불상도 똑같은 것이 없고 어느 불화도 일치되는 것이 없다.



북한산 구기리 마애석가여래좌상.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얼굴에 단정함 미소가 흐르는 고려초기 대표적 불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심성을 그대로 닮았다.

우선 여러 상들이 무서웠고 단정조차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1985년 호안 미술관에서 중국, 티베트의 불교 미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불교미술을 함께 비교하는 전시회인 만다라대전을 간 적이 있다.

여기서 필자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무섭게만 생각되어 왔던 불

불교미술은 교리·역사·개인 삶의 산물

사찰·불상·탑의 인간적 면모 부각 노력

그러나 지금까지 불교미술의 연구는 교리와 역사적 해석에 치우쳐 왔고, 인간적인 측면은 거의 도외시되어 왔다.

상미 중국이나 티베트의 불상과 비교하여 보니 그렇게 푸근하고 따뜻하게 보일 수 없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花嚴經論' 역사·사상적 의미 고찰

27일 영인본 간행기념 동국대서 학술발표회

<화엄경>의 가장 오래된 주석서인 북위(北魏) 영번(靈辯, 477-522) 스님의 <화엄경론(花嚴經論, 중국 요나라 때에는 화엄경에 花를 사용)> 영인본이 12월 27일 발간된다.

영번 스님의 <화엄경론>은 법장(法藏 647-714 중국) 스님이 <화엄경정기(華嚴經傳記)>와 <탐현기(探玄記)>에서, 정관(證觀 738-839 중국) 스님이 <화엄경소(華嚴經疏)>에서 참고할 정도로 <화엄경>을 면밀히 분석한 책으로,

초기 화엄학 연구와 이후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출간되는 <화엄경론> 영인본은 2001년 서울대 규장각에서 발견된 권51-56으로 <화엄경> 가운데 십지품(十地品)의 제2지에서 제4지의 내용에 대한 주석 부분이다.

이 책의 원본이 되는 송광사 소장본은 고려시대 의천 스님이 편찬한 <화엄경론 속장본(續藏本)>의 중수본(重修本)을 조선 초기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되는 책은 권51-56 전체의 영인본을 본문으로 일부에 있는 <화엄경론> 일부와, 27일 발표되는 논문 2편이 부록으로 실려, 현존하는 <화엄경론>을 이해하는 자료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 열리는 학술발표회는 영번 스님의 <화엄경론>이 갖는 역사적·사상적 의미를 고찰하는 자리. 최연식(금강대 국제불교문화연구소) 교수의 '영번 찬(撰) <화엄경론>의 전래와 사상적 특징'과 윤선대 교수의 '규장각 소장 영번 찬(撰) <화엄경론>에 대하여'가 발표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연식 교수는 '영번 스님의 <화엄경론>은 법장 스님이 인용했던 당대 최고의 <화엄경> 해설서이지만, 지금은 중국에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귀중한 자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발간되는데 몇 년의 공백이 있을 만큼 불교계의 관심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보물 제 1204호 '의경등필 수월관음도'. 부드러운 우면서도 치밀한 선과 색채 선명한 색채에서 조선시대의 미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한국불교미술관 새단장

전시실 확장... '중생의 염원' 특별전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존 전시실을 3실로 확장하고, 이를 기념한 '중생의 염원' 특별전을 12월 15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선시대 가장 오래된 불화인 '심적암 아미타극락 구품회도', '의경등필 수월관음도' 등 조선불화 15점과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목조지장삼존불상'을 비롯한 불상·공예·석조물 등 50여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특히 보물 제1204호 '의경등필 수월관음도'는 1730년 의겸 스님이 그린 불화,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는 많이 그려졌으나 조선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들며,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오유진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법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기도도량입니다.
주 [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교통편

-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III-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원단법회

● 일시 : 2004년 1월 4일(일) 오전 10시